



전주 재야축제 새해 맞이 퍼포먼스

지난달 31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2022년 전주 재야축제에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운트다운 및 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전주·완주, 공동 상생협력사업 진행

‘전주·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 등 2개 사업 발굴 · 추가 추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맺은지 한달여 만에 2가지 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2차 협약을 맺으며 도와 양시·군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후 발빠르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한달여 만에 ‘전주·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 등 2개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공덕세천(細川) 정비사업’은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흐르는 연장 2.5km의 작은 천으로, 제방

이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주민의 침수피해가 반복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시·군은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등 정비방안을 논의하며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은 학교급식 등 양시·군의 공공급식 분야에서 부족한 품목과 물량 발생 시 상대시·군의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교차 공급하기로 한 사업이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공공급식에 필요한 먹거리 중 64%정도(연 61억원 상당)를 타시·군에서 조달받고 있는데, 이를 우선적으로 완주군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완주군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전주시는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시·군은 수수료 조정, 물량확보,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교차공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빠른 시간 안에 추가로 협약을 맺고 한 걸음 더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서로 만나다 보면 당초 취지처럼 양 지역 주민 생활이 계속 나아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앞으로도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 지역 주민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덕세천 침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세천 정비를 함께 추진하도록 검토해 주신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11월 협약한 사업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시군이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완주군에서는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해 저수지 주변 개발시세를 분석하고 상관저수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도 수소도시 추진전략 연구용역비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 양 시군의 수소산업 기반을 연계한 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 성공”

국방부, 지난 3월30일 이후 9개월 만에... “보안상 이유... 국민에 사전보고 못해”

민주 김병주 의원 “문재인 정부 노력의 결실... 현 정부서도 잘 계승·발전시키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성능검증을 위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다. 다만 국방부가 비공개 시험을 예고 없이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군사보안상 이유로 국민에게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인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

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술과 노력을 잘 계승해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해 5월 말 문재인 정부에서 각급의 노력으로 한미 미사일 자립을 완전히 해제시켰다”며 “전임 미사일 사령관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며 “(문재인 정부) 성과와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연구해서 오늘 시험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말에 1차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비행시험을 한 바 있다”며 “오늘 시험은 2차 시험으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최아영 기자

“바이오화학산업 기반 구축·고도화 지원 필요”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 바이오화학 응용 핵심기술 확보 위한 통합 R&D 지원 등 추진과제 제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화학산업을 위한 친환경적인 바이오화학산업이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북은 바이오화학산업 여건과 인적요건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화학 산업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북도 바이오화학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바이오화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매스를 원

료로 사용 또는 생물체를 이용한 생산 공정을 통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속성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기존 석유화학산업에 대비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친환경 소재의 수요에 대한 충족과 생분해 및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 박사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으로 첫째, 바이오화학산업 가치사슬 강화 지원, 바이오화학 전주府 통합 핵심기술 확보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및 실용화 지원, 응용 핵심기술 확보

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오화학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이오화학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업 육성 및 유치, 차별화된 전라북도 바이오화학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과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산업화 촉진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확대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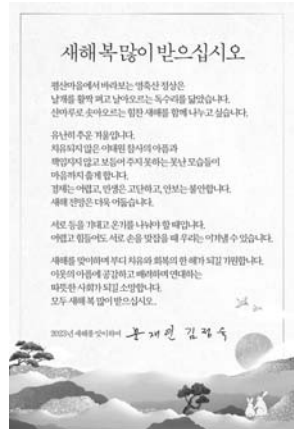
“유난히 추운 겨울 서로 기대고 온기 나눠야”

문 전 대통령 부부 새해 인사

“치유·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인사를 통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고 평하며 서로 기대고 온기를 나누고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김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한 모습이 마음까지 좁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인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 망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해를 맞이하며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전했다.

/뉴스시스

전북지역 ‘첫 명장 3인방’ 탄생

이·미용-강정희·제과·제빵-강동우·차량철도-박춘봉씨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처음으로 전라북도명장을 선정하고 증서와 명장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용분야 강정희씨(54, (유)노블레스 대표)와 △제과·제빵분야 강동우씨(56, 강동우 케익 대표)와 △차량철도분야 박춘봉씨(60, 박춘봉차량기술사 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명의 명장은 명장 선정 공로로부터 11월 최종 선정까지 약 세 달간 엄격한 서류·현장·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우리 지역 최고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됐다.

생산된 곡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정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홍콩 등에도 상품이 판매되어 2020년 까지 약 12만불의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다문화 가정·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수업이 가능한 교육 체계를 체험학교와 연계해 발전해 나가겠다”며 제과·제빵 분야 산업발전을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차량철도 분야 박춘봉씨는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주경야독으로 자동차 정비에 매진하였다. 일을 시작한 지 8개월만에 자동차 정비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자동차 정비기능장과 차량기술사 자격까지 보유, 자동차정비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기술연수에 정진해 왔다고 한다.

그는 평소 자동차란 인간의 문명과 기계의 문명을 연결해주는 가교라고 같다고 생각해 강건한 사회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며 선정소감을 전했다.

선정된 분에게는 연 300만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상으로 명패와 증서가 수여된다.

/김재훈 기자

‘2022년 한 해 마무리’ 전주시 종무식 성료

전주시는 강한 경제도시 구현과 전주의 대변역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2022년 한해를 마무리했다.

시는 2022년 전주시 종무식을 우범기 시장을 비롯 공무원 400여 명과 유공시민 100여 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민을 대표해 ‘올해의 자랑스런 전주시민’으로 선정된 시민·단체를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고, 전주시민국악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또 이날 시상식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우범기 시장 축하인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시민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힘과 뜻을 모아 찬란한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아영 기자

‘2023년 돼지카드’ 오늘 발행

전주시가 내년에도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1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을 개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발행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2400억원으로, 시는 안정적인 상품권 운영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월 발행한도 200억원을 설정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연 200만 원·월 50만 원이며, 캐시백 10%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결제시 충전금의 10%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양은경 기자

민주, 김건희 불법협찬 의혹 특검 시사

李 소환에게 김건희도 맞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본격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본격화 국면에서 적극적 맞불 전략 전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해 코비나콘텐츠 의혹이 무혐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본다”면서 “김 여사가 코비나콘텐츠 대표로 있을 때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 나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성남FC 조사를 보면, 오히려 전형적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

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특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새해에도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7일 김 여사의 의혹 관련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엔 비교적 화력을 집중하지 않는 양상이었으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재조명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출석 요구 관련 ‘김 여사 소환’ 주장을 펼쳤으며 “살아있는 권력 비주기가 계속되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시스